

Executive Summary

□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과 영향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선 우선 고유가 현상의 지속을 들 수 있다. 두바이 유 가격은 2003년말 배럴당 28.5달러에서 올해 6월 21일 현재 63.9달러로 2년 6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상승하였다. 둘째 글로벌 약달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분기 GDP 대비 6.4%에 달하는 美 경상수지 적자 문제, 일본과 EU 경제 회복 등의 요인으로 美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달러 가치 하락이 이미 주택 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세계 상품 수요처로서의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르는 미국의 세계 성장 견인력 감소를 의미한다. 셋째 부동산 버블 문제가 심각하다. 1997~2006년의 약 1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주택 가격이 최소 9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과잉 공급된 글로벌 유동성이 투자 부문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주식, 주택 등의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세계적 금융 惡순환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5년 이후 연간 4%대의 높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로 지역 물가도 2005년 3.3%에서 2006년 1~4월중 5.3%로 급등하였다. 특히 일본은 2003년까지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으나, 2004년 이후 생산자 물가가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5월중에는 2.8%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 현상은 IT 버블 붕괴 이후의 저금리 정책에 따르는 과잉 유동성, 국제 유가 급등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 다섯째 글로벌 인플레이는 금리 상승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 경제들이 성장을 위해서 물가를 방지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을 선두로 경쟁적인 정책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美 FRB는 2004년 6월 이후 연속적으로 연방 기금 금리를 4%p 인상하였다. ECB도 작년 12월에 약 2년 6개월 동안 유지되었던 2% 정책 금리 목표 수준을 포기하고 2.25%로 인상을 한 데 이어, 올해 3월과 6월에도 각각 0.25%p씩 추가 인상함으로써 정책 금리를 2.75%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중국도 올해 4월에 약 2년 이상 5.58%로 고정되었던 1년 만기대출 금리를 5.85%로 인상하였으며, 6월에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7.5%에서 8%로 0.5%p 인상하였다. 여섯째 미국의 세계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0년대의 경제 호황과 최근 5년여 동안의 경기 호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신경제 시대의 장기 호황은 IT부문과 같은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는 그러한 성장 동력이 없으며, 오직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대와 같은 장기 호황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2001~2005년까지 지속되었던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교역 조건 양극화로 선진국을 포함한 공업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유가 급등으로 석유 산출국이 많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교역조건은 2002년 이후 꾸준한 개선되었으며 2005년에는 교역조건 증가율이 23.4%로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은 이미 교역 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005년에 들어서는 수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마저도 교역 조건 증가율이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불안정성 증대는 세계 경제가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성장 산업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소비에만 의존하는 수요 의존적 성장 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최근에 들어 많은 불안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징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들이 심화된다면, 세계 경제가 고물가속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적 경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경제에도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에 대비하여, 인플레이를 막는 것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실질적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신규 고용을 적극 창출해야 한다. 또한 BTL 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재정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 침체기의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지나친 원화 절상을 방지하여 금융 자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외환, 금리,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과 영향 >

세계 경제 7대 불안 요인	
高유가 지속	두바이유 가격: '03년말 28.5달러 ⇨ '06년 6.21·63.9달러
글로벌 弱달러 지속	美 경상수지 적자, 일본·EU 경기 회복 등으로 약달러 지속
부동산 버블	1997~2006년 주택 가격 상승률 : 미국 95%, 영국 176, 뉴질랜드 93%, 아일랜드 231%
글로벌 인플레이 확산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 2005년 이후 4%대 이상 EU 생산자 물가 상승률 : 1~4월중 5.3%
금리 인상 도미노	미국 연방금리 : 2004년 6월 이후 16번 연속 4%p 인상 ECB : 2% 정책금리 목표 수준 포기
미국 성장세 약화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 약화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 견인력도 축소
교역조건 양극화 심화	2005년 중동 산유국 교역 조건 증가율 : 23.5% 비산유국은 모두 감소세로 구매력이 약화

세계 경제 **고물가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증대**

국내 경제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하강, 금융 시장 불안 우려	
소비 위축	인플레이 현상 심화, 교역 조건 악화, 이자율 상승 등으로 국내 소비 위축
기업투자 부진	환율 하락, 유가 급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어 투자 심리 냉각
수출 부진	환율 하락,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르는 국내 수출 경기 하강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 수지 악화
금융 시장 불안	급격한 국제 자본 이동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 심화

정책 과제

기본 방향 : 적극적 내수 활성화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투자 촉진 :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신산업 투자 촉진 등 ❖ 신규 고용 창출 : 산학 연계를 통한 실질적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 ❖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재정 기능 확대 : BTL 사업의 구체화 등 ❖ 금융 자본 시장 안정 :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급속한 환율 절상 억제 등 ❖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 환, 금리,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원 등 	

□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과 영향

1.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 최근 세계 경제는 ①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② 글로벌 약달러 추세 지속, ③ 부동산 버블, ④ 전세계적 인플레이 확산, ⑤ 금리 인상 도미노, ⑥ 미국의 세계 성장 견인력 약화 우려, ⑦ 교역 조건 양극화 심화의 7가지 불안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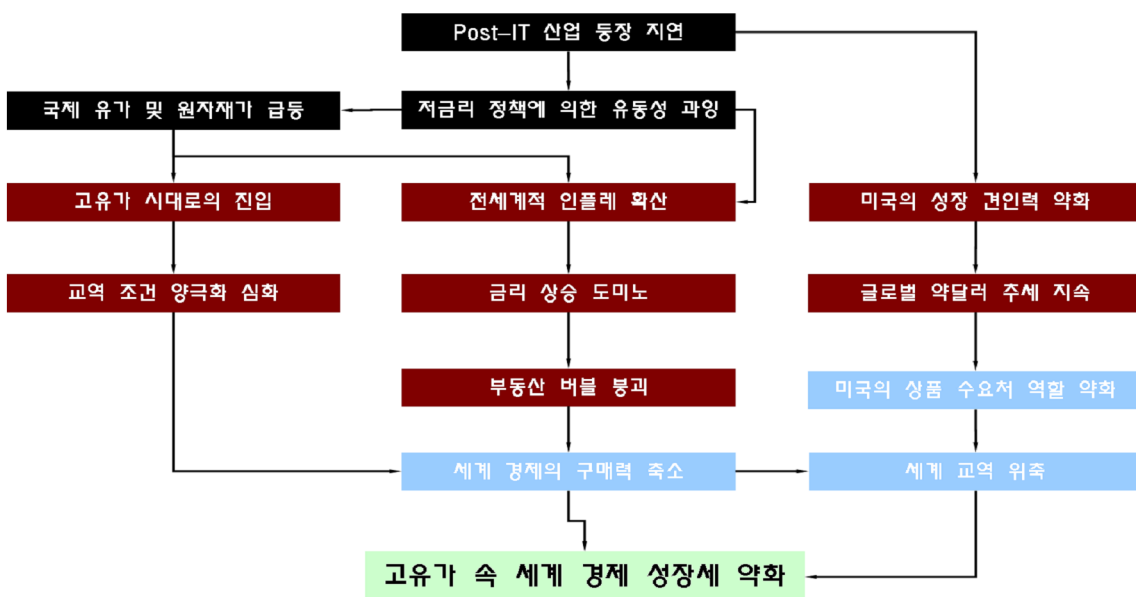
- 세계 경제가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소비 수요, 중국의 개발 수요 등에만 의존하는 수요 의존적 성장 구조가 고착화됨

- 따라서 IT와 같은 신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90년대의 장기 호황과, 2000년대의 경기 호조는 근본적으로 그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함

-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에 많은 불안 요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수요 견인 성장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징후로 판단됨

○ 나아가 현재 관찰되고 있는 7대 불안 요인들은 독립적인 성격이 아닌 상호 악순환 고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단기간 내 해소가 불가능하고 수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의 원인과 영향 >



2.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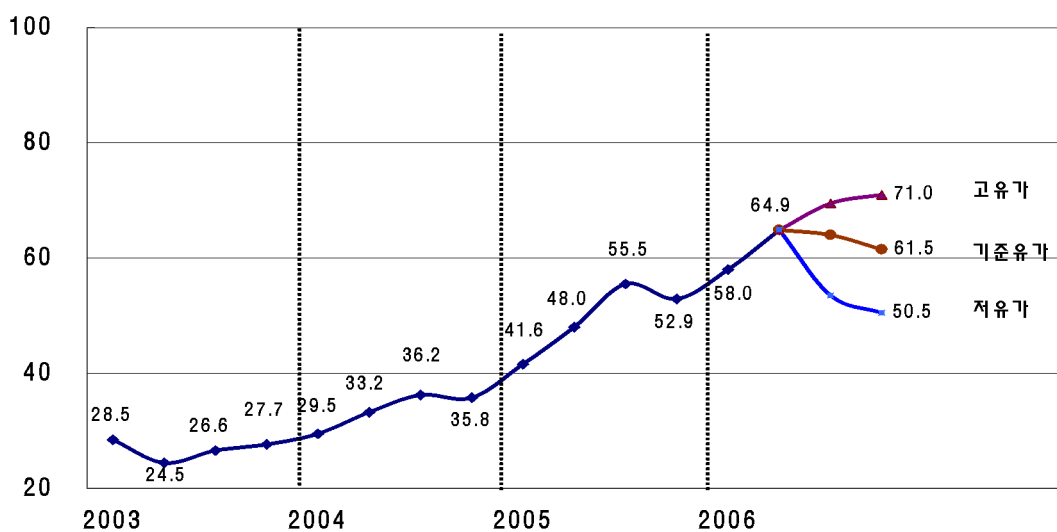
①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

○ 90년대 20달러 미만의 저유가 시대가 신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중 한 가지로 작용한 반면, 2000년대에 들어 고유가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국제 유가 급등 : 두바이유 가격은 2003년말 배럴당 28.5달러에서 올해 6월 21일 현재 63.9달러로 2년 6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상승
- 수급 불안과 투기 자본의 시장 유입 :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들의 수요 급증이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며, 글로벌 유동성이 석유 시장에서 투기 자본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도 고유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고유가 지속 전망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시장 여건이 지속될 경우, 올해 중으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이상, 수급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70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Dubai油) 추이 및 CERA 전망 >

(단위: 달러/배럴)



자료 : 한국석유공사,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주 : 전망 시점은 2006년 5월이며, 2006년 2/4분기는 4월 ~ 6월 15일 기간중 평균치임.

< 參考 >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세 지속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르는 채굴 및 생산 비용의 급격한 증가, 신흥 공업국들의 수요 급증 등으로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로이터 상품 가격 지수는 2001년 1,178.18에서 2006년 5월 2,028.98로 72.2% 상승하였으며, CRB 선물 지수도 같은 기간 80.9%가 상승함
- 특히 비철 금속 중 구리의 경우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급등하여, 작년말 가격의 약 2배 이상 상승함
- 또한 중동 정세 불안, 기축 통화인 달러 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안전 자산인 金 가격은 2001년말 온스당 278.95달러에서 2006년 5월말 현재 645.20달러로 약 131% 급등함

<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및 상품 가격 추이 (기말 기준)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월
상품지수	로이터	1,178.18	1,368.81	1,664.51	1,570.79	1,796.56	2,028.98
	CRB	190.61	234.52	255.29	283.90	331.83	344.87
비철금속	구리	1,460.4	1,542.5	2,318.0	3,264.0	4,542.0	8,009.0
농산물	소맥	289.00	325.00	377.00	307.50	339.25	393.50
귀금속	금	278.95	348.05	415.45	438.45	517.00	645.20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로이터상품지수 1931. 9. 18. = 100, CRB는 1967 = 100임
- 2) 구리의 단위는 달러/톤, 소맥은 센트/부셸, 금은 달러/온스임.

< 로이터 상품 지수 >

- 로이터상품지수는 (Reuter's index of commodity prices index)는 영국의 로이터통신사가 매일 발표하는 상품지수이며, 17종의 원자재를 포함

< CRB 지수 >

- CRB 지수는 CRB(Comodity Reserch Bearau)사가 매일 발표 하고 있으며, 구성은 미국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1개 품목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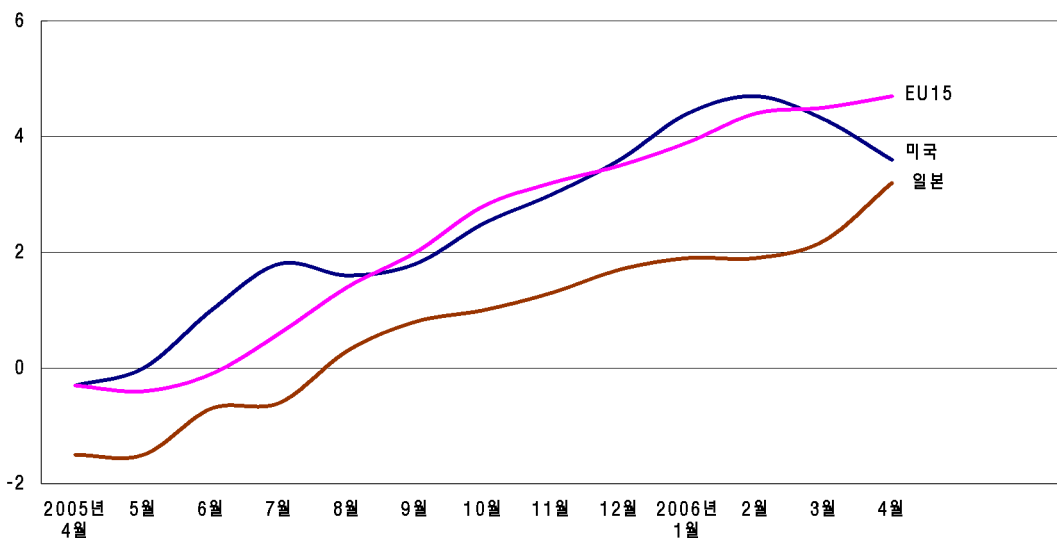
② 글로벌 약달러 추세 지속

○ 美 경상수지 적자 문제 지속, 일본과 EU 경제의 회복 등의 요인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美 경상수지 적자 문제 지속 : 원유 수입액 증가, 對 중국 무역 역조 등으로, 美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6,653억 달러(對 GDP 비중 5.7%)에서 2005년에 7,915억 달러(6.3%), 올해 1/4분기에는 2,087억 달러(6.4%)로 확대됨
- 美 경기 하강 속 EU 및 일본 경기 회복 : 미국 경제가 하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과 EU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 >

(%)



자료 : OECD.

- 약달러 추세 지속 전망 : 미국의 금리 상승은 일시적으로 약달러 추세를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세로 반전시킬 수 있으나, EU 및 일본의 금리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세적으로는 약달러를 지속할 전망이다

< 주요 투자 은행들의 환율 전망 >

(단위: 기말 기준, 엔, 달러)

	2006			2007	
	5월말 현재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12개월후
엔/달러	112.7	108.7	105.2	103.3	101.8
달러/유로	1.281	1.291	1.304	1.313	1.302

자료 : 15개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

③ 부동산 버블

○ 수년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비롯된 과잉 유동성이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에 사용되지 못하고 세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글로벌 부동산 버블 문제가 심화됨

- 부동산 가격 급등 : 1997~2006년의 약 10년 동안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0% 내외를 기록함
 - 특히 영국 176%, 아일랜드 231%, 남아프리카공화국 299% 등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도 1997년 5월~2006년 5월의 10년 동안의 전국 APT 매매 가격 상승률은 61%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강남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150%에 달함
- 투자처 부재와 유동성 과잉 :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것은 과잉 공급된 유동성이 투자 부문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주식, 부동산, 주택 등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세계적 금융 뒤편환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주요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 추이 (1997~2006년) >

(%)

국가	남아공	뉴질랜드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률	299%	93%	95%	176%	115%	231%	61% (150%)

자료 : The Economist, 국민은행.

주 : 1) 해외 지표는 Economist紙 기준이며, 국별 주택 가격의 최근 시점은 2005년말부터 2006년 5월 사이에 위치함

2) 한국은 APT 매매 가격의 1997년 5월~2006년 5월 기간동안의 상승률임.

< 미국 주택 경기 하강 >

- 그동안의 미국 주택 경기 붐은 저금리 정책에 따르는 풍부한 가계 대출 유동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음
- 그러나 최근 FRB의 16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주택 경기의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미국의 주택 착공호수(전기대비, %) : 13.1% (2006년 1월) → -5.9% (2월) → -6.4% (3월) → -7.4% (4월)

④ 전세계적 인플레이 확산

○ 저금리 정책에 따르는 과잉 유동성,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동시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인플레이 확산 :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한국 등 중후진국 경제들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남
 - 미국 : 이미 2005년 이후 연간 4%대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5월에도 생산자 물가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전년동월대비 4.5%의 상승률을 나타냄
 - EU : 유로 지역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2005년 3.3%에서 2006년 1~4월중 5.3%로 급등함
 - 일본 : 2003년까지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으나, 2004년 이후 생산자 물가가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5월중에는 2.8%까지 상승함

- 중국 : 최근 석유류 제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4개월 만에 최고치인 1.4%까지 상승함
- 한국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대 초반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에 약 1~2분기 선행하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1/4분기에 8.1%로 급등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불안이 우려

- 저금리 및 유가 상승이 원인 : 글로벌 인플레이 현상은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과잉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임
 - 지난 IT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공급된 유동성이 투자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최근 선진국들의 인플레이 현상은 주로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용 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선진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5월
미 국	3.2	3.6	4.9	4.3
E U	1.4	2.3	3.3	5.3
일 본	-0.8	1.3	1.7	2.8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6년은 기간중 월평균이며, EU의 2006년 수치는 1~4월 기준임.

⑤ 금리 상승 도미노

○ 선진 경제들이 성장을 위해서 물가 상승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을 선두로 경쟁적인 정책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주요국의 금리 인상 : 美 FRB는 2004년 6월 이후 16번에 걸쳐 연방 기금 금리를 4%p 인상함 (1%에서 現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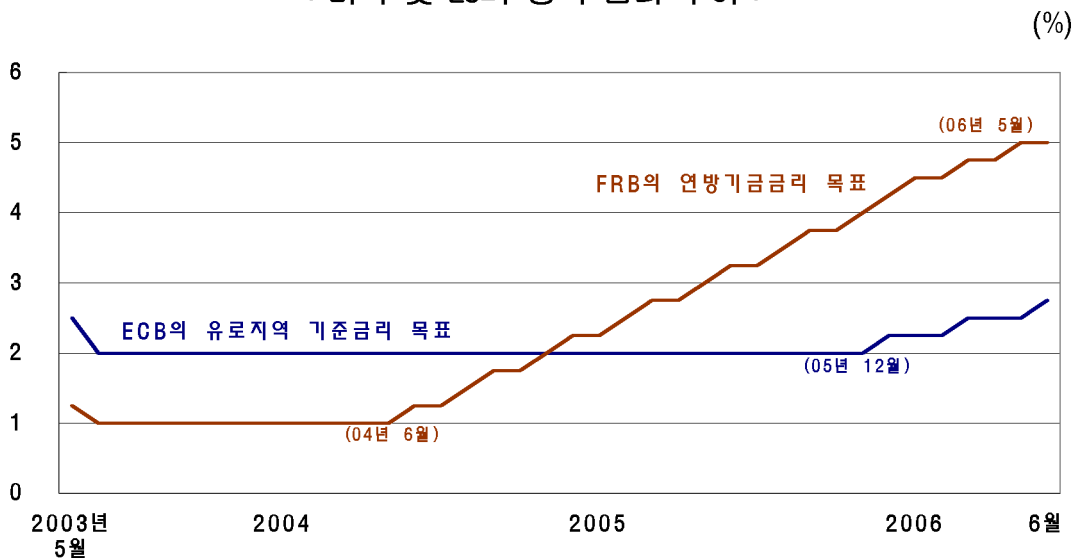
- ECB (유럽중앙은행)도 작년 12월 약 2년 6개월 동안의 2% 정책 금리 목표 수준을 포기하고 2.25%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0.25%p씩 추가 인상함으로써 현재 정책 금리는 2.75%에 이르고 있음

- 중국도 올해 들어 4월에 약 2년 이상 고정되었던 1년 만기대출 금리를 5.58%에서 5.85%로 인상하였으며, 6월에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8%로 0.5%p 인상함

- 일본은 아직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초에 제로 금리 정책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어 조만간 정책 금리(공정할인율)를 인상할 것으로 판단됨

- 물가 안정으로 정책 방향 전환 : 물가 불안,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의 문제가 선진국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 요인들의 해소가 절실해져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 미국 및 EU의 정책 금리 추이 >



자료 : FRB, ECB.

⑥ 미국의 세계 성장 견인력 약화 우려

○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성장을 견인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경기 하강 우려 증대 : 미국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6%에 달하고 있으며, IMF에 의하면 올해 성장률도 2005년의 3.5%보다 다소 하락한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번의 미국 경제 호황이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보다 소비 호조에 더 의존하고 있어, 최근의 금리 인상, 주택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IT 버블 붕괴 이후 2001~2005년까지 이어졌던 미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고, 2006년 이후에는 미국 경제의 세계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과 EU의 세계 성장 견인력 증대 : 이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 강도는 일본과 EU 경제의 회복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과 EU 경제가 아직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 확장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세계 상품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4	연간(E)
세계 경제성장률	5.3	4.8	-	-	-	-	-	4.9
미 국	4.2	3.5	3.6	3.6	3.6	3.2	3.6	3.4
E U	2.1	1.3	1.2	1.2	1.6	1.8	2.4	2.0
일 본	2.3	2.7	1.4	2.6	1.8	3.7	3.8	2.8
중 국	10.1	9.9	9.9	10.1	9.8	9.9	10.2	9.5

자료 : 한국은행,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6.4.

⑦ 교역 조건 양극화 심화

○ 유가 급등으로 석유 산출국들의 교역 조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반면 非 석유 산출국들의 교역 조건이 크게 악화되는 교역 조건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중임

- 산유국 교역 조건의 큰 폭 개선 : 석유 산출국이 많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교역조건은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는 23.4%로 크게 확대됨
- 非 산유국 교역 조건 악화 : 이에 비해 非산유국의 교역 조건은 악화되었으며, 특히 선진국보다 NIEs의 교역 조건 악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 수출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2001~2004년 기간 동안에는 교역조건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5년에 들어 하락세로 반전됨
 - NIEs : 특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경우 다른 非 산유국들보다 교역 조건 악화 정도가 심함
 - 이는 NIEs의 주력 수출 품목인 IT, 중화학 부문의 세계적 과잉 공급 문제가 지속되어 수출 단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아시아 개도국 :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중임

< 주요 경제권 교역 조건 증가율 추이 및 전망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E)
주요 선진국	0.5	1.3	2.8	0.5	-2.6	-1.2
NIEs	-0.6	-0.8	-2.9	-3.1	-3.0	-1.2
아시아 개도국	-0.3	0.6	-0.8	-2.1	-1.3	-1.2
중 동	-9.3	2.6	2.0	11.5	23.4	7.9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6. 4.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시사점)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들이 심화되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소비 위축 : 인플레이 현상이 심화,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르는 구매력 저하, 이자율 상승 등으로 국내 소비 위축이 예상됨
 - 기업 투자 부진 : 환율 하락, 유가 급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어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투자 확충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악화 : 환율 하락, 미국 경기 하락으로 수출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은 확대되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존재함
 - 금융 시장 불안 : 특히 금리, 환율 변동과 국가간 경기 국면의 차이에 따르는 국제 자본 이동 속도가 빨라져,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정책 과제

-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기업 투자 촉진, 소비 심리 안정,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추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① 기업 투자 촉진

- 민간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정의 적용 예외 인정의 확대 또는 제도 자체의 폐지가 필요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공장설립시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 제도 축소 등도 시급함
- 특히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인허가 제도의 대폭 간소화 등을 추진

② 고용 창출과 소비 심리 안정

- 산학 고용 연계와 같은 실질적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가계 소비 회복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함
- 국민 조세 부담률의 현 수준 유지,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함
- 또한 가계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용 회생 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통해 유동성 제약에 따르는 소비 침체 경로를 미연에 차단해야 할 것임
 - 현행 소비자 신용 회복 정책은 대상 기준이 협소하여, 경제 내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구조조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
 - 따라서 한시적으로 배드뱅크, 개인파산제 등의 소비자 신용 회복 제도의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③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재정 기능 확대

- 경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BTL 사업의 구체화 등의 재정정책 추진

④ 금융·자본 시장 안정화

- 과잉 유동성 흡수와 내외 금리차 축소를 위해 금리 인상 추세는 필요하나, 그 인상 속도는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 달리 자산과 부채 담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소비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음
- 외환 시장에서의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임

⑤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 대외 여건 급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환, 금리,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과 활성화에 주력

주 원 연구위원(3669-4030, juwon@hri.co.kr)